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 EFSET

EF 표준 영어 시험에  
무료로 응시하세요

[www.efset.org](http://www.efset.org)

2016

[www.ef.co.kr/epi](http://www.ef.co.kr/epi)

## 목차

---

- 04 개요
- 06 EF EPI 2016 순위
- 08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 10 영어, 경제 그리고 삶의 질
- 12 영어와 혁신
- 14 영어와 기술
- 17 지역별 프로필
- 18 유럽
- 22 아시아
- 26 라틴아메리카
- 30 중동 및 북아프리카
- 35 결론
- 36 부록 A: EF EPI 에 관하여
- 38 부록 B: EF EPI 국가별 점수
- 40 부록 C: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41 부록 D: 인용자료
- 42 EFSET: 언어능력 평가의 혁신

## 개요

경영인, 기업가, 프로그래머,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어 능력을 키움으로써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오늘날 영어는 서로 다른 문화권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된 이후 영어 능력만큼 사람들의 소득을 좌우하는 개인 역량은 없었습니다. 영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EF Education First 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전 세계 성인 수백만 명의 영어 실력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적 기준인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영어능력지수, EF EPI)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EF EPI 는 국제 사회에서 영어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EF EPI 제 6 판에서는 2015 년 온라인 영어 시험에 응시한 성인 95 만 명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72개 국가 및 지역을 순위별로 나열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영어와 소득, 혁신, 기술 등의 경제 및 사회적 지표가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에서 영어가 가지는 입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지역별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EF EPI 2016 핵심 내용:

- 영어는 개인 및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능력지수가 높을수록 소득, 삶의 질, 사업 환경의 역동성, 연결성, 혁신 등의 지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5 개의 영어능력지수 등급이 최소한 아시아와 유럽의 한 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어능력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영어능력지수 순위 중 상위 5위는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 싱가포르의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어능력지수 '우수' 등급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세계 15 위권에 진입했습니다.
- 하락 정도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평균 영어능력지수가 하락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모두 영어능력지수 '부족' 등급에 속합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영어능력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영어 실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EF EPI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 18세 - 25세의 청년층의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EF EPI 2016 순위

##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우수**

01	네덜란드	72.16
02	덴마크	71.15
03	스웨덴	70.81
04	노르웨이	68.54
05	핀란드	66.61
06	싱가포르	63.52
07	룩셈부르크	63.20

**양호**

08	오스트리아	62.13
09	독일	61.58
10	폴란드	61.49
11	벨기에	60.90
12	말레이시아	60.70
13	필리핀	60.33
14	스위스	60.17
15	포르투갈	59.68
16	체코	59.09
17	세르비아	59.07
18	헝가리	58.72
19	아르헨티나	58.40
20	루마니아	58.14

**보통**

21	슬로바키아	57.34
22	인도	57.30
23	도미니카공화국	57.24
24	불가리아	56.79
25	스페인	56.66
2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56.17
27	대한민국	54.87
28	이탈리아	54.63
29	프랑스	54.33
30	홍콩	54.29
31	베트남	54.06
32	인도네시아	52.94
33	타이완	52.82

**미흡**

34	러시아	52.32
35	일본	51.69
36	우루과이	51.63
37	마카오	51.36
38	코스타리카	51.35
39	중국	50.94
40	브라질	50.66
41	우크라이나	50.62
42	칠레	50.10
43	멕시코	49.88
44	모로코	49.86
45	페루	49.83
46	아랍 에미리트	49.81
47	에콰도르	49.13
48	파키스탄	48.78

**부족**

49	콜롬비아	48.41
50	파나마	48.08
51	터키	47.89
52	튀니지	47.70
53	과테말라	47.64
54	카자흐스탄	47.42
55	이집트	47.32
56	태국	47.21
57	아제르바이잔	46.90
58	스리랑카	46.58
59	카타르	46.57
60	베네수엘라	46.53

61	이란	46.38
62	요르단	45.85
63	엘살바도르	43.83
64	오만	43.44
65	쿠웨이트	42.98
66	몽골	42.77
67	알제리	41.60
68	사우디아라비아	40.91
69	캄보디아	39.48
70	라오스	38.45
71	리비아	37.82
72	이라크	37.65

#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EF 영어능력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을 '우수'부터 '부족'까지 5 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통해 어느 국가의 영어 능력이 비슷한지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격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등급별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들이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등급별 영어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영어 능력을 비교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관하여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활용하면 영어 능력이 비슷한 국가를 쉽게 파악하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은 해당 등급에 포함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는 각 등급별로 상위 3개국을 표시하였으며, EF EPI 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및 지역에서만 조사하였습니다.

등급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b>우수</b>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 상황에 적절한 말투와 언어 구사하기 ✓ 수준 높은 문장을 쉽게 읽기 ✓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계약 내용 협상하기
<b>양호</b>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 직장에서 발표하기 ✓ TV 프로그램 이해하기 ✓ 신문 읽기
<b>보통</b> 슬로바키아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 ✓ 노래 가사 이해하기 ✓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하기
<b>미흡</b> 러시아 일본 우루과이	✓ 영어권 국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 직장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 ✓ 직장 동료의 짧은 이메일 이해하기
<b>부족</b> 콜롬비아 파나마 터키	✓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이름, 나이, 국적 등) ✓ 간단한 표지판 이해하기 ✓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

# 영어, 경제 그리고 삶의 질

## 영어의 역할 변화

영어는 대영 제국 시대에 최초의 국제 교류 및 외교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그 사용이 광범위해졌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는 언어였던 프랑스어가 이제는 영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세계화, 도시화, 그리고 인터넷의 부상 등으로 인해 지난 20 년 동안 영어의 역할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영어는 엘리트만을 위한 언어이거나 영미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영어 능력은 전 세계 노동 인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200 년 동안 엘리트의 특권이었던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된 것과 같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영어는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 선순환 구조

영어 능력과 1인당 국민순소득 (도표 A) 간의 상관관계는 선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소득은 높아집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정부 및 개인의 투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낮은 실업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국가적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영어

외국 자본 유치 및 거래를 증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국가와 회사들은 영어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 본사가 있는 기업 (라쿠텐, 르노, 삼성 등) 들은 기업 내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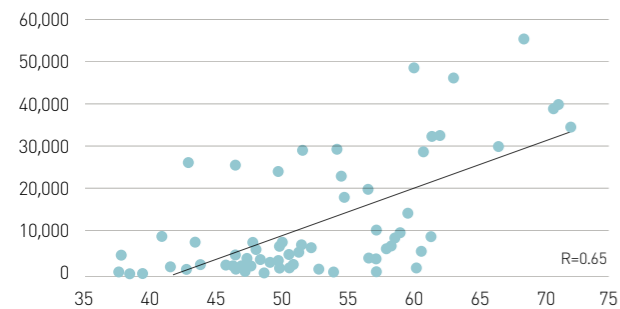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도표 B) 와 같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 또한 EF EPI 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개발지수는 교육 수준, 기대 수명, 읽고 쓰는 능력, 그리고 생활수준을 측정합니다. 몇몇 국가는 영어능력지수 등급이 '미흡' 또는 '보통'이어도 인간개발지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영어능력지수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의 국가는 인간개발지수에서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 필수 역량인 영어

EF EPI 2016 에 따르면 영어는 현대인의 필수 역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국어 읽기 능력, 수학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영어의 중요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지금의 청소년이 구직 활동을 시작할 때쯤이면 영어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도표 A: 영어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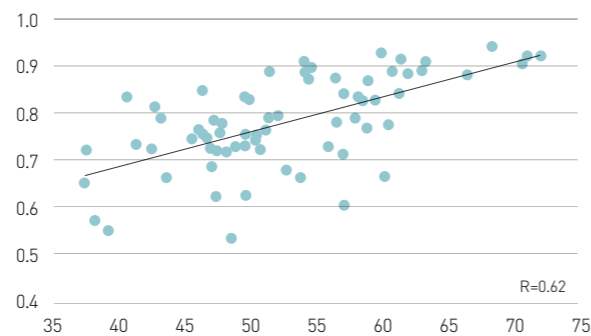
1인당 국민순소득 (2005년 미국 달러 기준)



출처: 세계 은행 (World Bank), 2014

도표 B: 영어와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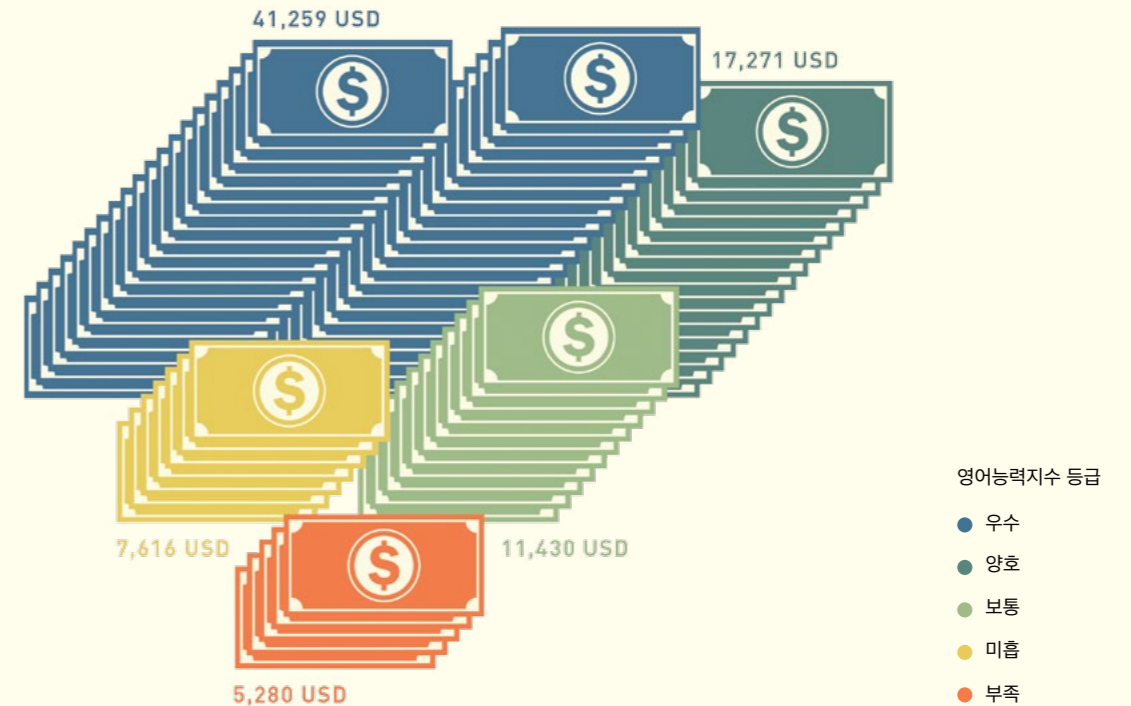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출처: UN 인간 개발 보고서, 2015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 개인 소득능력과 영어

아래 인포그래픽은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국민순소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료는 영어 능력과 개인 소득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출처: 세계 은행 (World Bank), 2014

# 영어와 혁신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재 간에 화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때 영어는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어 혁신을 위해 직원들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영어의 핵심 역할**  
정보기술 산업은 국제적 소통에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2014 년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10 개는 모두 영어 기반의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 과 RUBY 뿐이었습니다.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는 더 높은 기술력의 제품을 수출하고 [도표 C] 항공, 컴퓨터, 제약, 과학 실험 도구, 전자 기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또한 영어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연구자와 기술자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도 큼니다. [도표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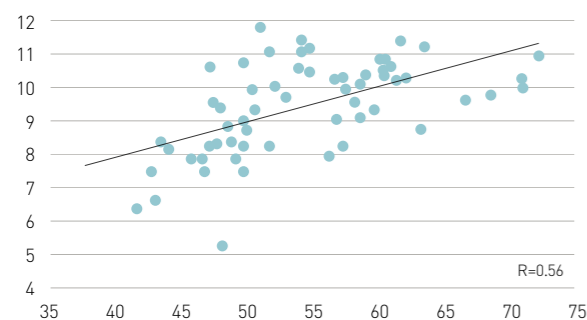
**영어와 아이디어 공유**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가 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혁신가들은 중요한 과학 연구자료를 읽고 국제적으로 협업하고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수 있는 네트워크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과업에 필요한 인력을 영어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매년 가장 많은 과학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두 번째, 영국이 세 번째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논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과학 연구를 통틀어 중국 연구 논문이 인용되는 비율은 4% 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30%, 영국이 8% 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아직 중국이 세계 지식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영어능력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 년도에 중국에서 발표된 과학 연구 논문 중 단 21% 만이 국제 협력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은 그 비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국제적 혁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영어능력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도표 C: 영어와 첨단 기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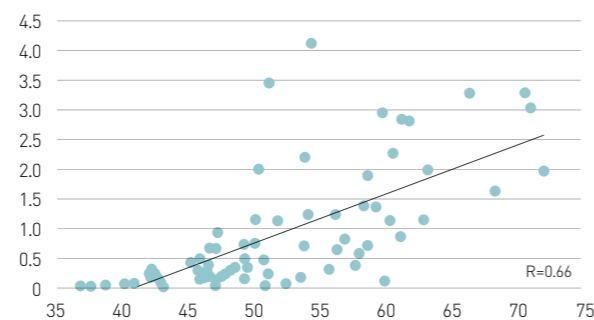
첨단 기술 수출 (로그 스케일)



출처: 세계 은행 (World Bank), 2014

도표 D: 영어와 혁신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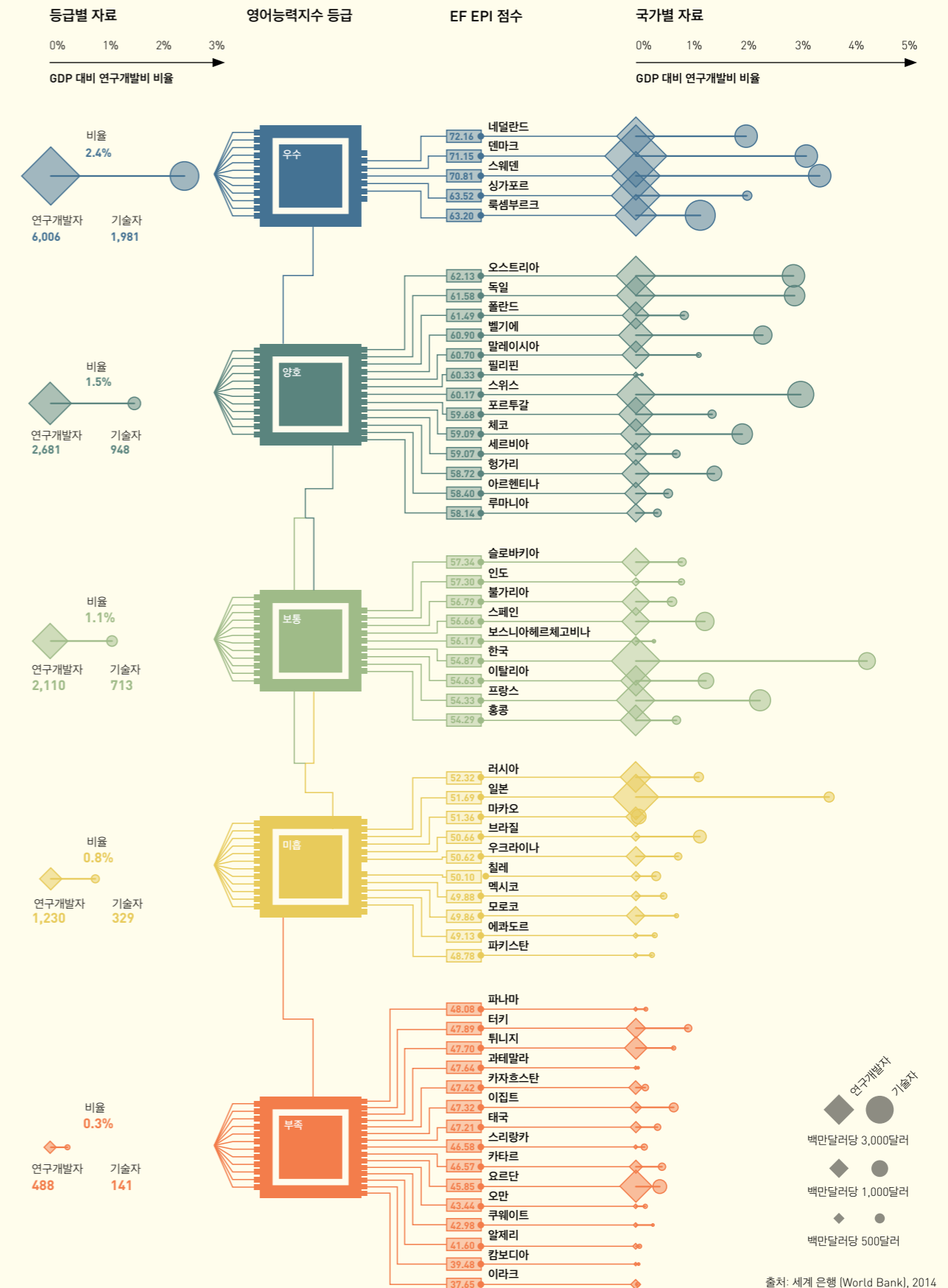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



출처: 세계 은행 (World Bank), 2014

##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인 영어

영어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의 혁신도를 측정하는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가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알게 해 줍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은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1 인당 연구자 및 기술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영어와 기술

## 인터넷 연결과 모바일 기술의 확장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는 인터넷 보급률 또한 높습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해당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 수와 비례합니다. 또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GSMA: GROUPE SPECIALE MOBILE ASSOCIATION)와 모질라 재단 (MOZILLA FOUNDATION)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인터넷 연결이 30억 건에 이르게 되며, 그중 절반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연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기술과 인터넷 연결의 확장은 전 세계 20억 명의 영어 학습자에게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 도구를 이용해 상호적이고 개별 맞춤형인 언어 학습으로 언제 어디서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태블릿 용으로 제공되는 언어 학습 제품들은 전통적인 언어 수업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 자원, 기회가 없는 사람도 쉽게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술이 바뀌는 영어 수업 환경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대면 학습 시스템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면대면 시스템만을 갖춘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자재와 학교 제반 시설이 향상되고 선생님이 이러한 기술을 학습 환경 안에서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 성과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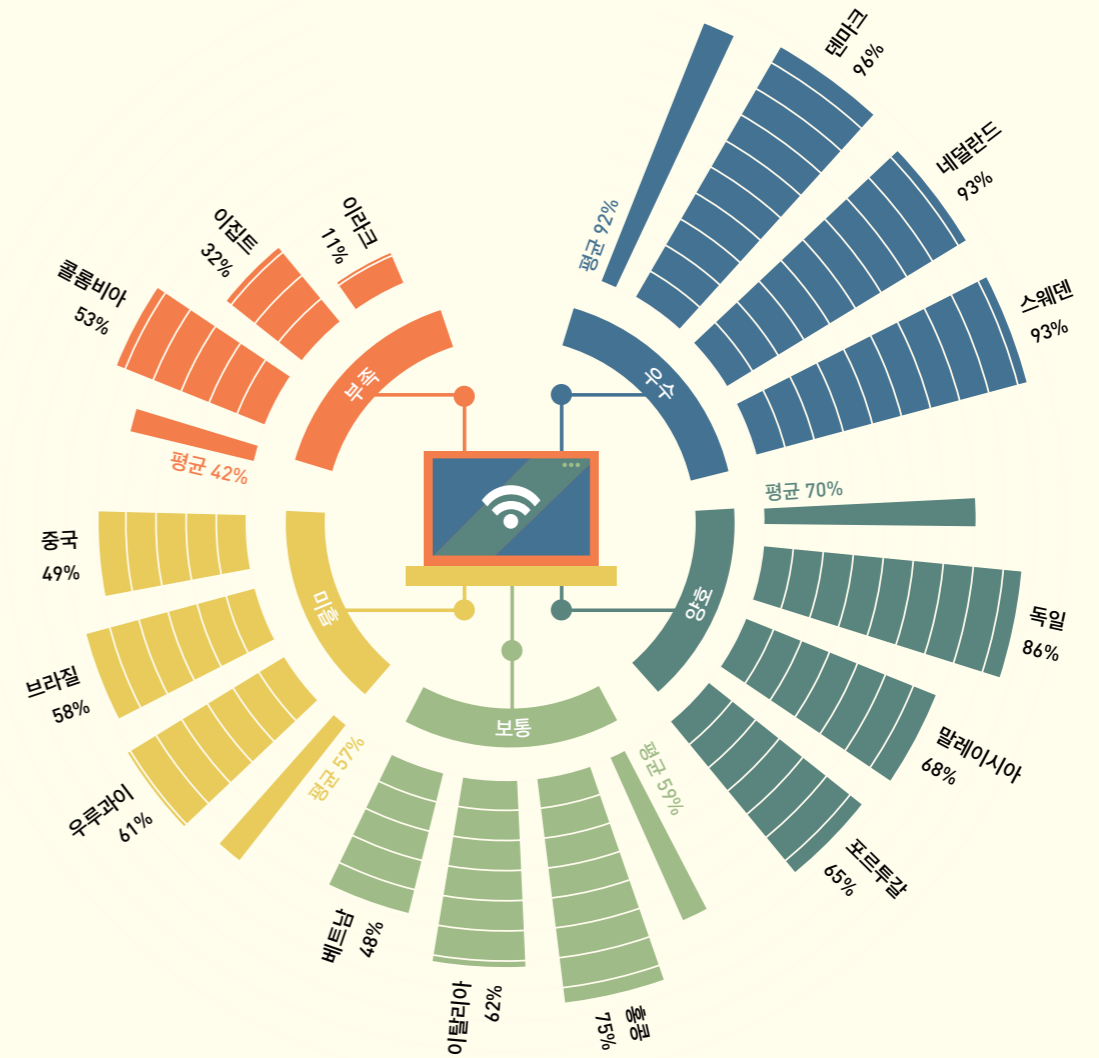
기술로 인해 언어 학습 환경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학생 학습 지원을 통한 교사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 교사의 시간은 학습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일부 학생들을 디지털 기기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교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평가 제공.** 반복적인 연습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평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체점을 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개별 학생의 능력 향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맞춤 학습.** 대부분의 교사들은 많은 학생을 지도해야 하고, 학생 개인의 영어 능력 정도, 학습 동기, 선호하는 학습 방식 등이 제각기 다르므로 개별 맞춤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통해 개별 맞춤 수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몇몇 학습 시스템은 학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한 연습 문제를 추가로 주는 등 개별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내 상호작용 활성화.** 예를 들어, 학생의 의견을 취합하는 투표 시스템은 학생 참여를 격려하고 토론 수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게임 기반의 순위표는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급 메신저나 블로그를 통해 교실에서 말하기 꺼려하는 학생들도 안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 학생 학습 지원.** 학습 환경에 기술을 도입하면 문자 음성 변환 기능 및 문자 가독성 향상 도구로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최신 학습 자료와 영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책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므로 최신 학습 자료를 얻기 쉽습니다. 어떤 학습 프로그램은 매일 그 날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학생들을 영어 원어민이나 다른 학생들과 연결하여 영어로 소통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영어와 인터넷 연결

온라인 콘텐츠의 50% 이상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능력지수는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수와 긍정적 상관관계 (상관계수 r=0.67)에 있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은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대표하는 국가의 평균 인터넷 보급률을 나타냅니다. 인터넷 보급률은 해당 국가의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입니다.



출처: 세계은행 (World Bank),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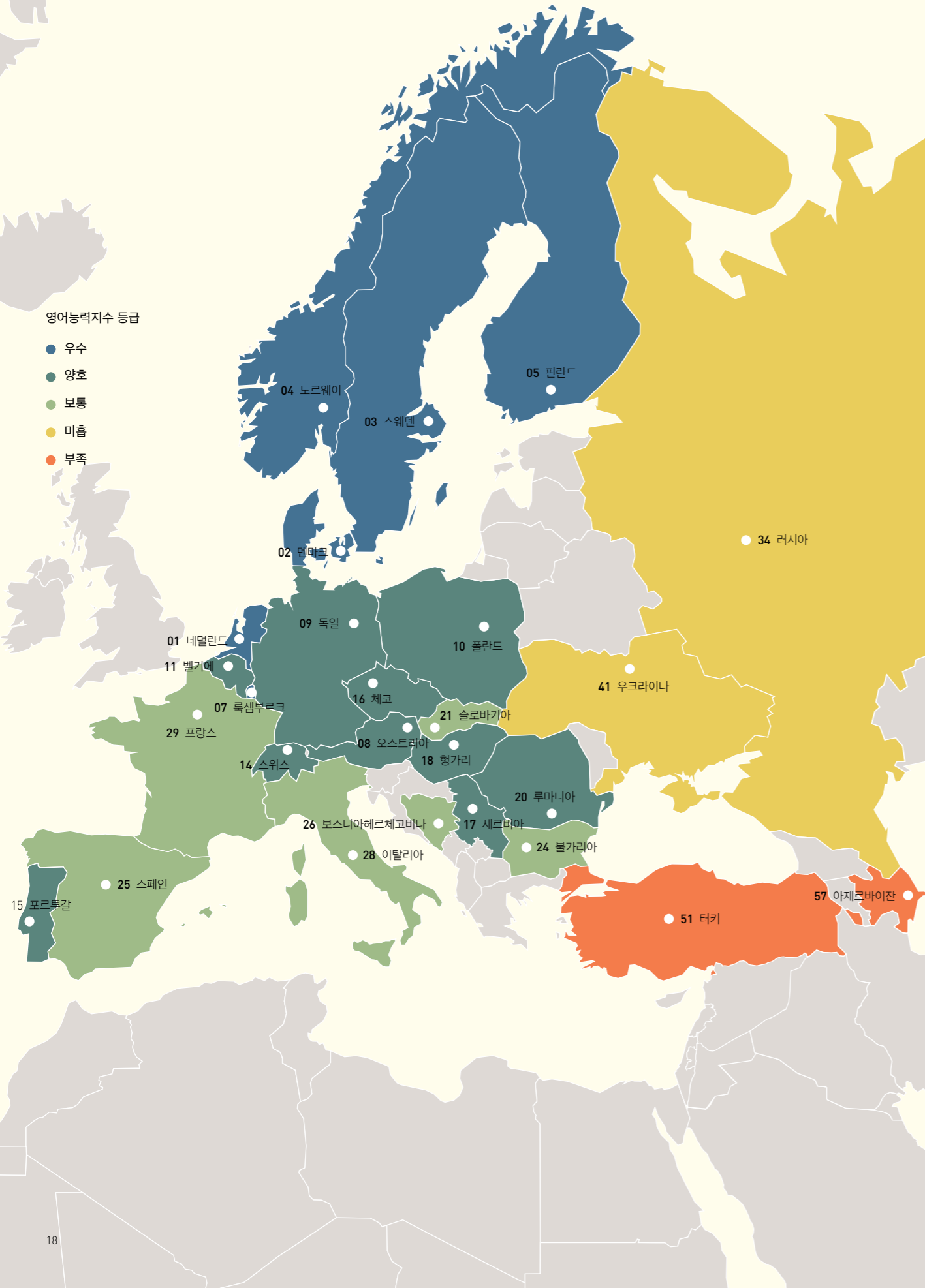
## 지역별 프로필

---

이어지는 지역별 분석에서는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의 영어능력지수를 알아봅니다.

지역별 프로필에서는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역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성별 및 세대 별 트렌드를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국가별 자료는 [www.ef.co.kr/epi](http://www.ef.co.kr/epi)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다중 언어 사용의 선구자 유럽

유럽연합은 지역 내 이동을 도모하고 대륙 내 언어적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중 언어 사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외국어 교육 증진에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합니다. EF 영어능력지수 상위 10개국 중 9 개 국가를 모두 유럽의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국가 간 영어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교육 시스템 및 언어 교육 정책,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사용 빈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상위권을 지킨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의 영어능력지수 등급은 여전히 '우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가들은 총 여섯 번 발표된 EF EPI 에서 다섯 번이나 상위 5위권을 차지하면서 영어 교육의 세계적인 리더임을 과시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교육 제도를 통해 자국민들이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외국어 교육 학습 정책은 문법을 숙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영어능력지수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는 자막이 없는 영어 프로그램을 자주 상영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영어 교육을 받지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환경입니다.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들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학술 영어 능력이 낮아 해외 연수 기회가 적고 경제적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 다중 언어 교육의 성공

지난 10년간 중부 유럽 국가들의 영어능력지수는 영어능력지수는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벨기에, 독일, 폴란드, 스위스는 영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적 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는 영어와 제2 외국어를 필수로 수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처럼 공식 언어가 1개 이상인 국가는 의무 교육 과정에 자국어와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등의 국가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영어 교육에 대한 지출이 낮은데도 영어능력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국제 사회에 융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회적 인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국가들의 교육 제도는 영어와 기타 외국어가 지식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남북 격차에 대한 속설

국가 간 영어 능력은 지리학적 요인이 아닌 라틴계 언어의 사용 여부에 따라 격차를 보였습니다. 라틴계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사이에서 낮은 영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로망스어 (Romance languages) 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은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작년과 비슷한 등급에 머물렀으나, 지난 8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 국가들은 개혁을 통해 영어를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했고, 의사소통 방식의 지도법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개선 정도는 미미한 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영어능력지수가 향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여전히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의사소통 기술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영어 사용 빈도도 낮습니다. 또한, 미국화 현상(Americanization)이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가한다는 감정적 담론이 외국어 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어능력지수가 주변 국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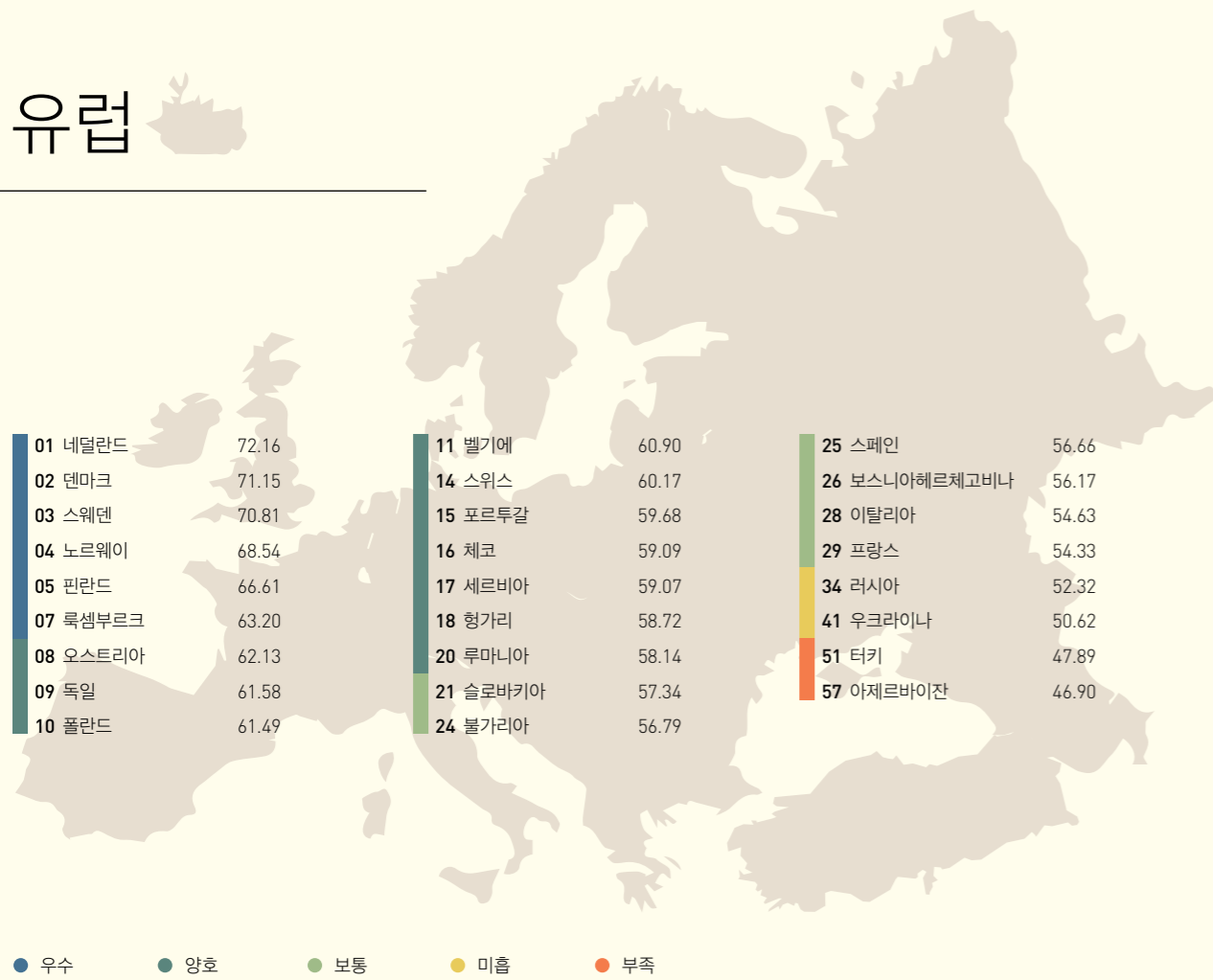
###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낮은 유럽 국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터키의 영어능력지수는 작년보다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럽 주변 국가보다 뒤떨어집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직 영어 교육을 자국어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보다는 암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 교육 커리큘럼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터키는 지난 몇 년 동안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펼쳤으며, 이로 인한 효과 또한 입증되어가고 있습니다.

### 결론

유럽의 영어능력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중앙 유럽의 국가들은 뛰어난 영어능력지수를 보였습니다. 로망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유럽 평균 이하의 영어능력지수를 기록했고 유럽연합 주변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상호 연결되어 다중 언어가 필수인 오늘날, 유럽의 언어교육 정책은 세계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완벽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언어 정책은 지역 내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표준화 및 경제적 경쟁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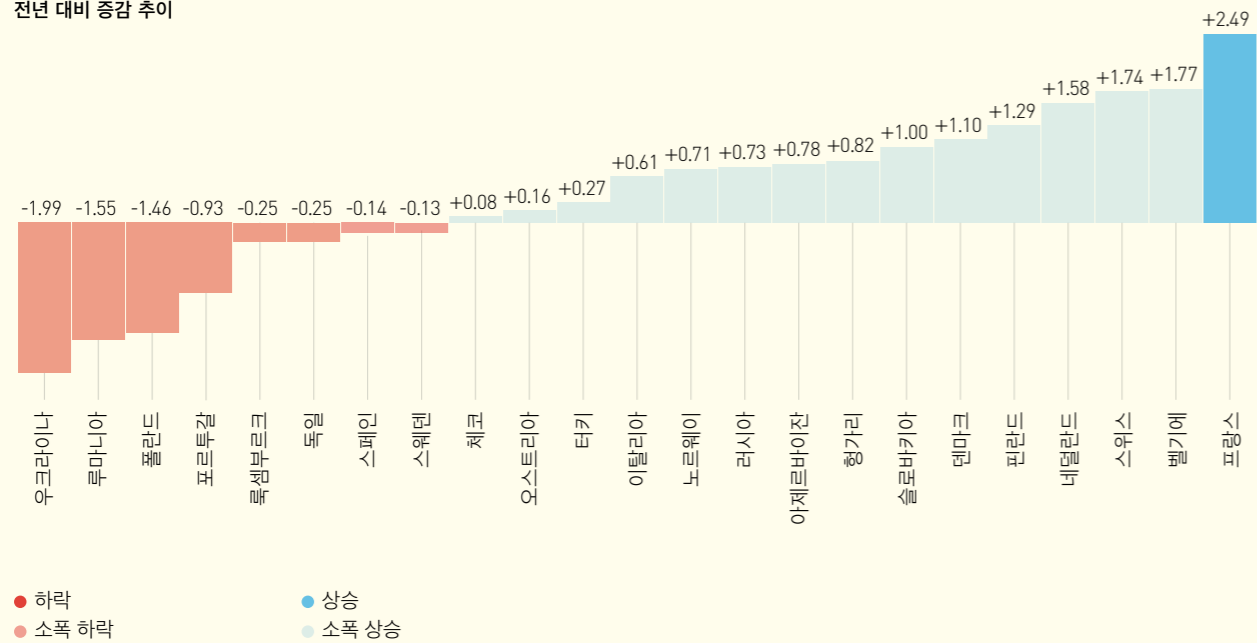
# 유럽



## EF EPI 추세

유럽 국가 대부분은 영어능력지수에서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해 영어능력지수 '미흡'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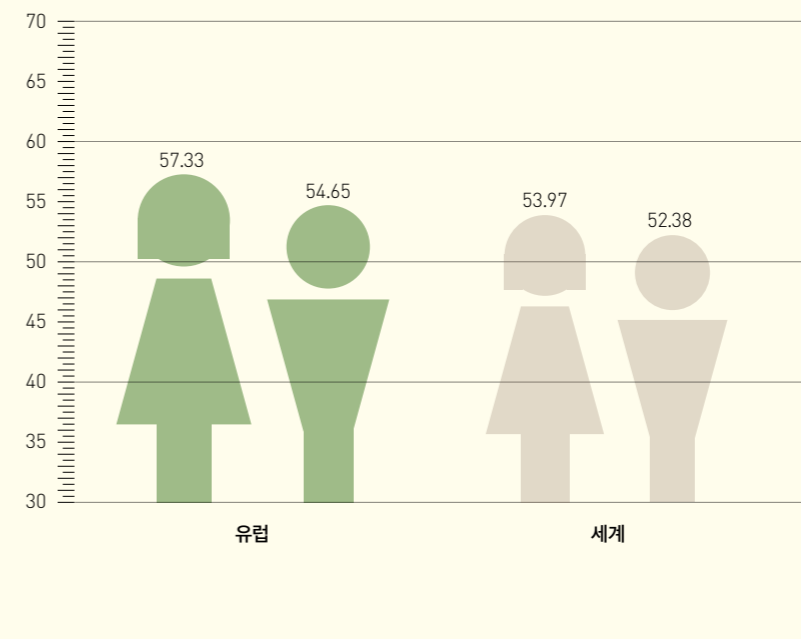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유럽 남성과 여성의 경우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추세와 마찬가지로 유럽 여성은 유럽 남성보다 영어능력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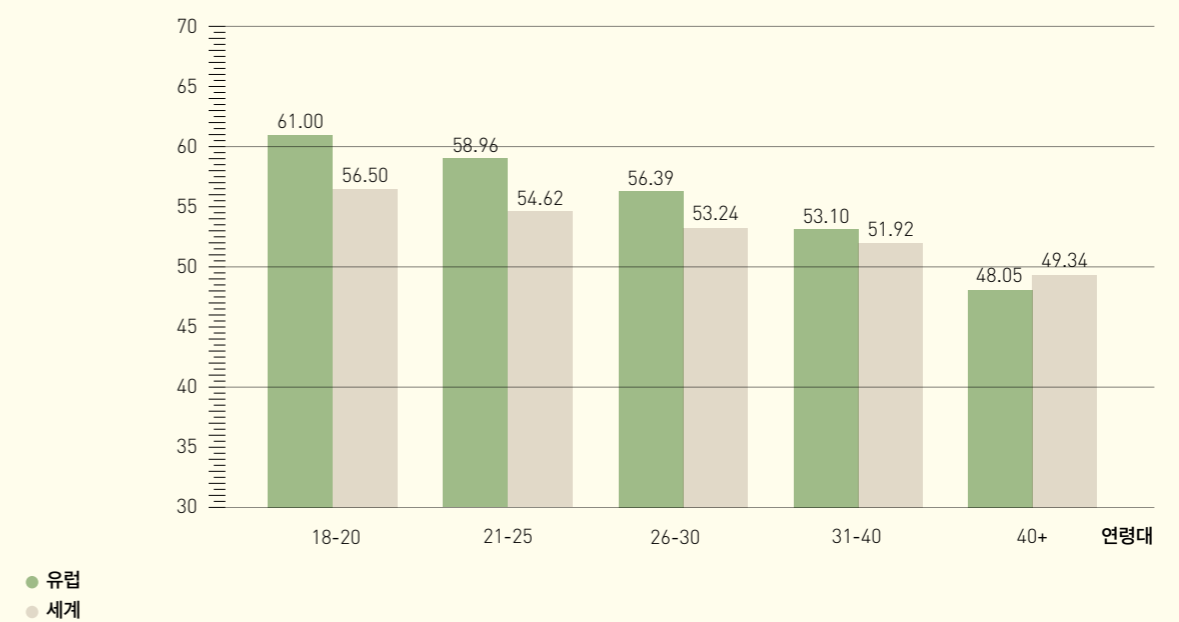
## EF EPI 점수



## 세대 간 차이

성인층의 영어능력지수 등급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차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학생은 '우수' 등급에 속했고, 40대 이상 성인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등급에 속했습니다. 현재 40대 성인이 학교에서 받았던 언어 교육 정책이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영어능력지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EF EPI 점수



# 아시아



## 지역 경제 성장이 영어 교육을 활성화 시킨 아시아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전 대영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 오랫동안 영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했던 국가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1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국가의 경우는 영어가 학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제도적 기준입니다. 영어를 제1외국어로 사용했던 국가의 경우는 언어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정책과 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 영어와 밀접한 역사

홍콩과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를 모두 역사적으로 영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정부의 언어 중 하나로, 학교 교육 언어로, 그리고 일부 사회 계층에서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은 비즈니스와 관광 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강세와 사투리가 많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유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상대로 역사적으로 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영어 숙련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5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의 순위가 높아지며 영어능력지수 '우수' 등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에서는 주로 무역, 국제 비즈니스, 제조업 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학문 분야에서는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국립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학문적, 전문적으로 활용할 만한 수준의 영어 교육이 어렵다고 믿어, 사설 영어 교육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영어 시험 점수가 대학 입학과 졸업, 졸업 후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영어 시험이 취업 시장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직군에서도 지원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국어보다 영어가 부각되는 문제를 염려하는 가운데 영어 시험의 역할을 두고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글로벌 리더인 중국

최근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원벨트 (One Belt) 65 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400 억 미국 달러를 투자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원벨트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원로드 (One Road) 계획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어 숙련도는 자국의 국제적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은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고, 자국 기업들의 사업도 해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2015 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고 기록을 세웠고, 2016년에는 중국 회사들도 외화 획득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2 배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몇몇 중국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 (Alibaba) 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이 되었으며, 화웨이 (Huawei) 는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F EPI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인의 영어 능력이 높은 국가는 재능 있고 아이디어가 참신한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혁신을 한층 발전시키게 됩니다. 중국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리면서 전 세계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영어의 역할은 점차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 영어와 세계의 여행산업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타이완, 베트남의 경우는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영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특화된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나 간호사 같은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동남아시아 학교의 영어 교육 개혁, 보다 나은 교사 교육, 성인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제공을 추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아시아 학생들의 외국 유학

동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 유학을 위해 영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 본토 출신의 대학생이 영어 사용 국가로 유학을 가는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 년, 중국 학생 52 만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그 중 97% 가 자비 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수많은 외국 유학생이 현지 인력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자들의 영어 능력 기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외국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2020 년까지 외국 대학에 등록하는 일본 학생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유학 장려운동 (Tobitate! Ryugaku Japan) 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영어능력지수 '보통' 등급에서 '미흡'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지속 가능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결론

2016 년 처음으로 EF EPI 에 참여한 라오스, 마카오,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아시아에서 영어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영어 능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조사하고,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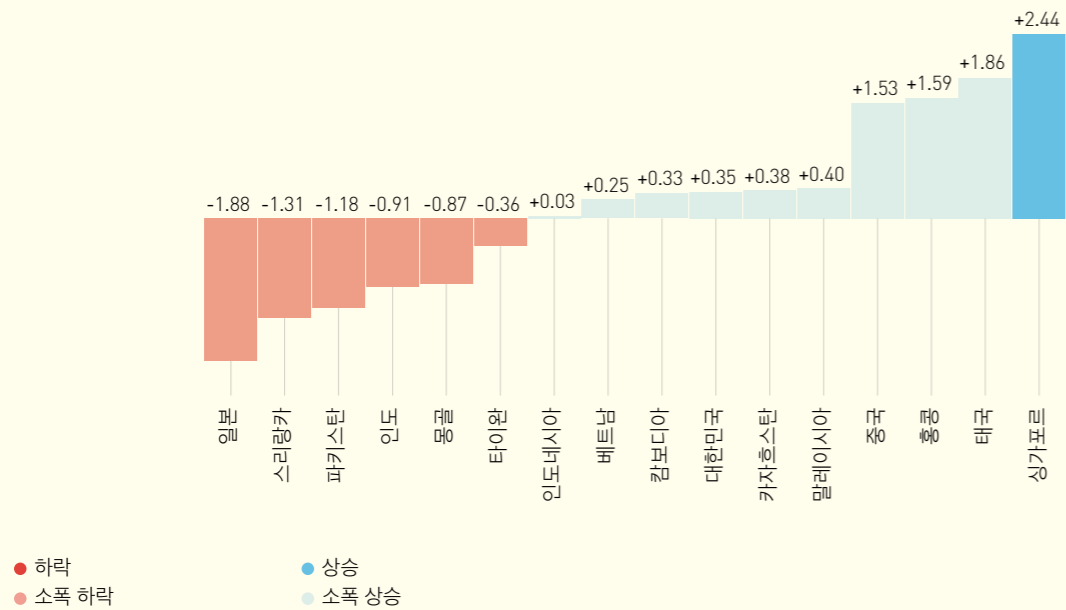
06 싱가포르	63.52	32 인도네시아	52.94	54 카자흐스탄	47.42
12 말레이시아	60.70	33 타이완	52.82	56 태국	47.21
13 필리핀	60.33	35 일본	51.69	58 스리랑카	46.58
22 인도	57.30	37 마카오	51.36	66 몽골	42.77
27 대한민국	54.87	39 중국	50.94	69 캄보디아	39.48
30 홍콩	54.29	48 파키스탄	48.78	70 라오스	38.45
31 베트남	54.06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추세

싱가포르의 영어능력지수는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향상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영어능력지수 '우수' 등급에 진입하였습니다. 중국, 홍콩, 타이완은 눈에 띄게 향상된 반면,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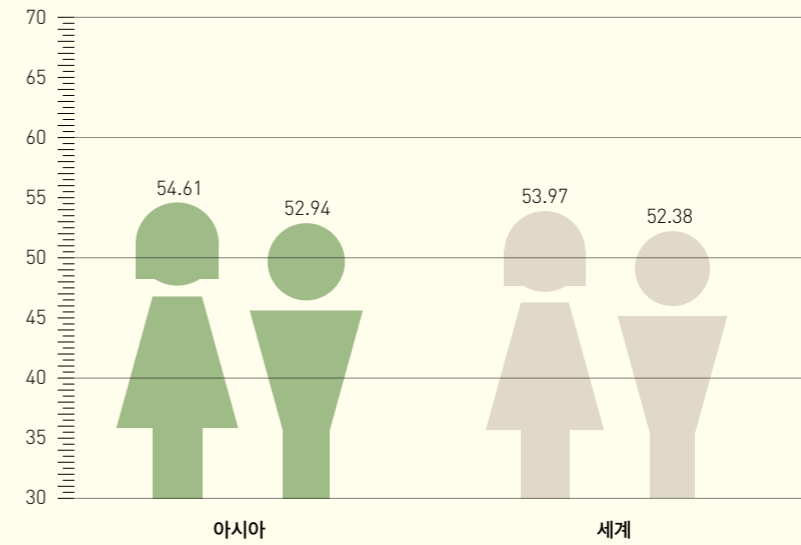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아시아 여성과 남성의 평균 모두 세계 평균보다 소폭 높으며, 여성의 영어능력지수는 남성보다 2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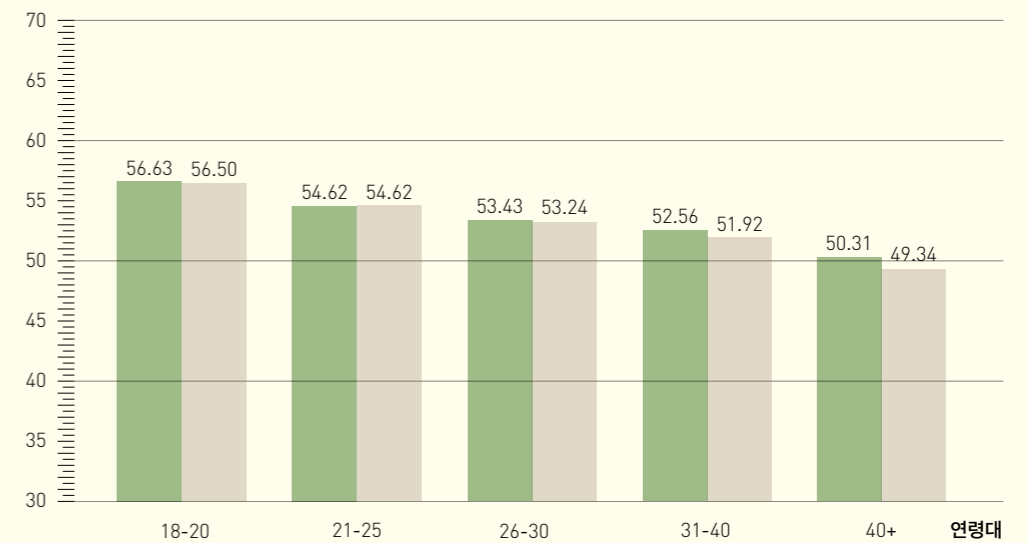


● 아시아  
● 세계

## 세대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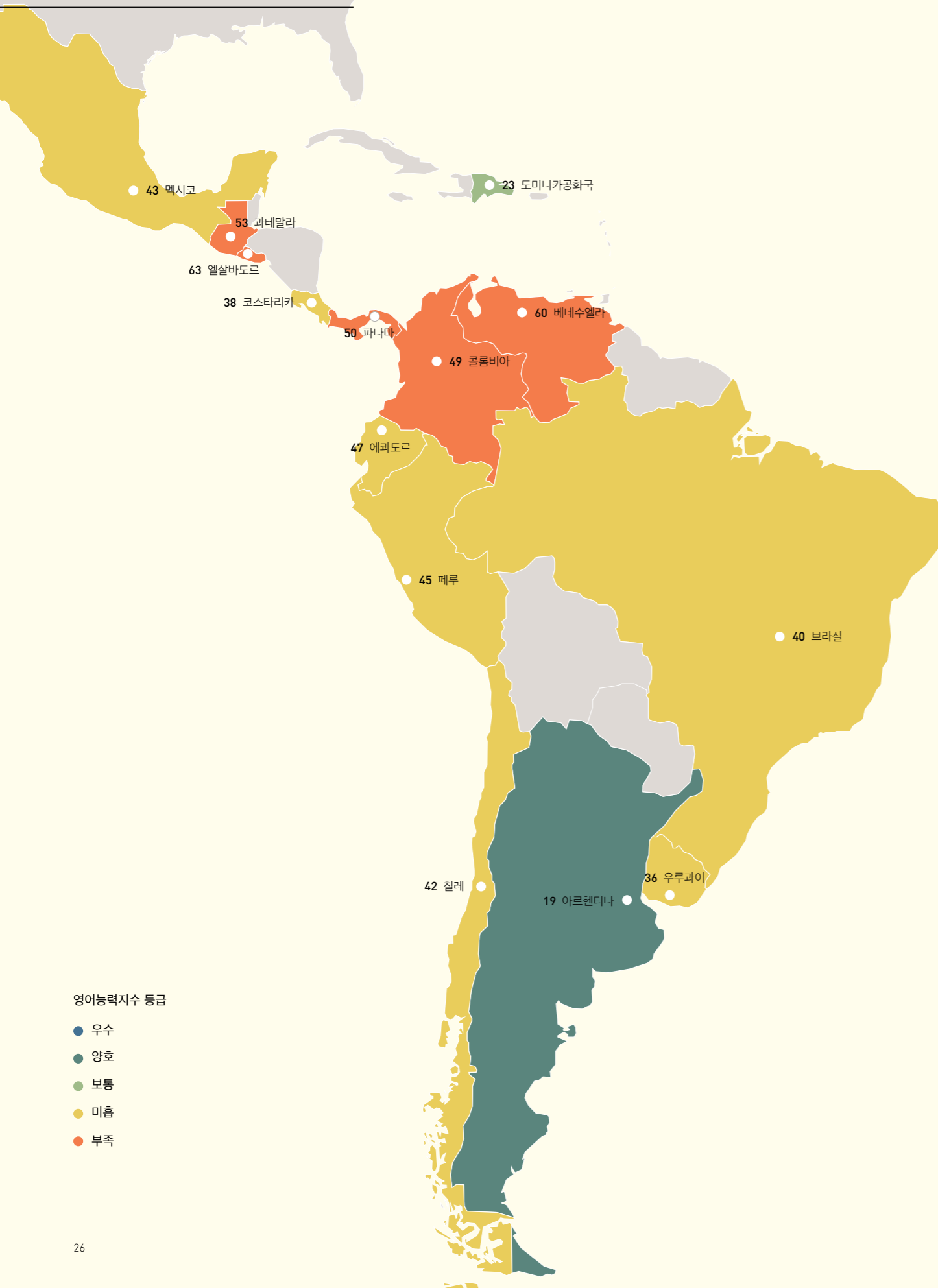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의 영어능력지수는 세계 평균과 유사합니다. 18세-20세 그룹의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영어능력지수는 낮아졌습니다. 세계의 추세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교육 방법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 영어 숙련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EF EPI 점수



● 아시아  
● 세계

# 라틴아메리카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영어 숙달에 대한 노력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성인 영어 능력은 취약하며 이 지역 많은 국가들의 영어능력지수가 전년대비 하락했습니다. 14 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아르헨티나와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올해 가장 낮은 영어능력지수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 지역의 공용어인 스페인어

영어가 지역 언어인 유럽, 아시아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는 지역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지역 공용어로 인해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교육 체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능력 향상을 더디게 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스페인어가 지역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영어 능력을 가진 인력의 가치가 높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개혁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선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어 교사들은 국립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5년제 대학원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에 통과된 국가 교육법 (National Law of Education) 을 통해 국립학교 4학년부터 12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미 5 개 국의 정치, 경제적 협의체인 남미공동시장 연합 (Mercosur bloc) 은 회원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주변 국가들과 좀 더 다양한 교역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전 주지사였던 다니엘 시올리 (Daniel Scioli) 는 국제 교역 위상을 강화할 수단으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에 집중하는 브라질과 멕시코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학생 수십만 명을 단기 과정과 학위 과정을 위해 영어권 국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근접성을 활용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2015년에 십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멕시코 학생 10 만 명을 미국의 단기 집중 영어 과정으로 보내고 미국은 2018년까지 멕시코로 학생 5만 명을 학업을 위해 보낼 계획입니다. 양자 간의 계획은 양국의 언어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 브라질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의 대학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English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후, 브라질 전역 수백 개의 대학교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2016년 리우 올림픽 준비를 영어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광부 장관은 여러 계층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와 스페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교사 양성에 힘쓰는 국가들

라틴아메리카 지역 대부분의 교육 개혁 계획은 지역 교사 양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투자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 결과도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교사 육성 사업 (Go Teacher scholarship program) 과 파나마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Bilingual Program) 은 언어 및 지도 방법 교육을 위해 매년 현지 교사 수백 명을 영어권 국가의 대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영어 교사 현지 교육과 초중등 학생의 영어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 년 7월,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향후 10년에 걸쳐 중상급의 영어 실력을 갖춘 대학 졸업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6 억 9 천만 미국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일부는 1 만 2 천 명의 교사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외국 출신 교사를 초빙하는 우루과이

2009 년, 우루과이는 Plan Ceibal 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2 년 동안 40 만 대 이상의 노트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여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초등학교생들이 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화상 회의 기술을 전국의 학교에 보급 했습니다. Plan Ceibal 을 통해 90% 이상의 초등학교에 외국인 영어 교사, 주로 필리핀 영어 교사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온라인 자용 학습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 결론

전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영어능력지수는 낮은 편이며, 개선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영어 교육을 늘리기 위해 기대치 높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전략과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국가들이 영어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융합을 위해서는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라틴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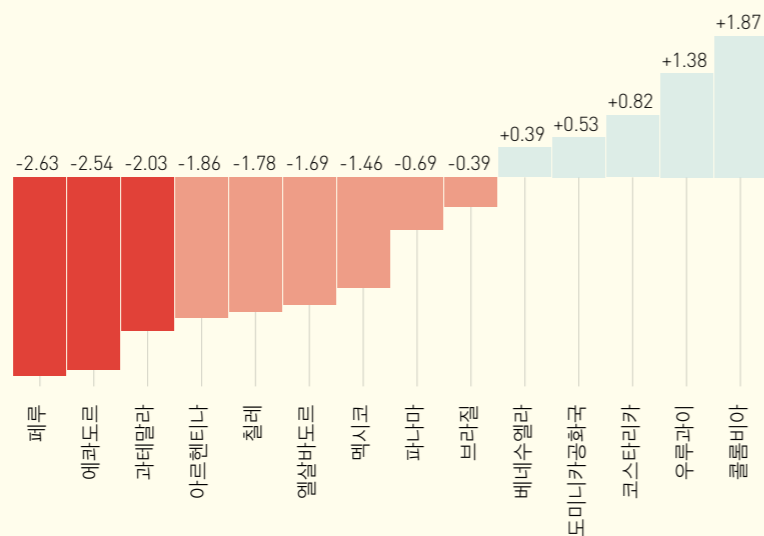
19 아르헨티나	58.40	45 페루	49.83
23 도미니카공화국	57.24	47 에콰도르	49.13
36 우루과이	51.63	49 콜롬비아	48.41
38 코스타리카	51.35	50 파나마	48.08
40 브라질	50.66	53 과테말라	47.64
42 칠레	50.10	60 베네수엘라	46.53
43 멕시코	49.88	63 엘살바도르	43.83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추세

라틴아메리카는 하락세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평균 지수가 하락한 지역입니다. 에콰도르, 과테말라, 페루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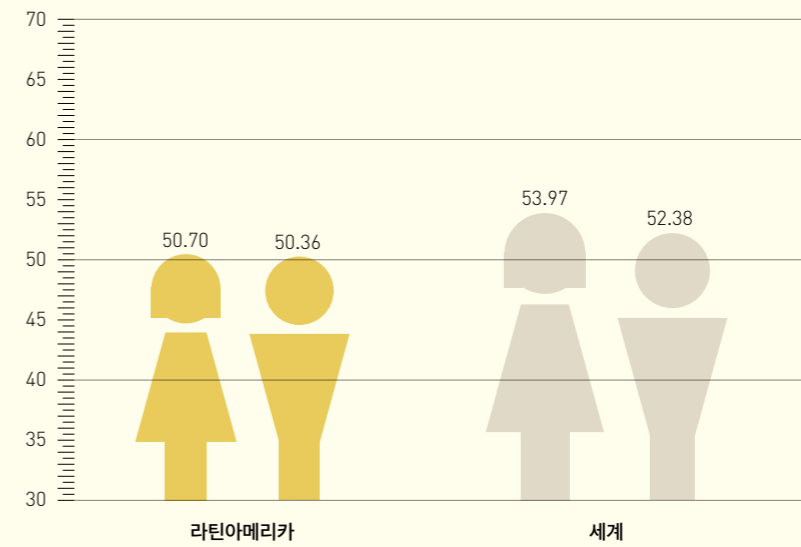


● 하락 ● 상승  
● 소폭 하락 ● 소폭 상승

## 성별에 따른 차이

라틴아메리카의 남성과 여성 모두 세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지만, 성별 간의 영어능력지수 차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습니다.

##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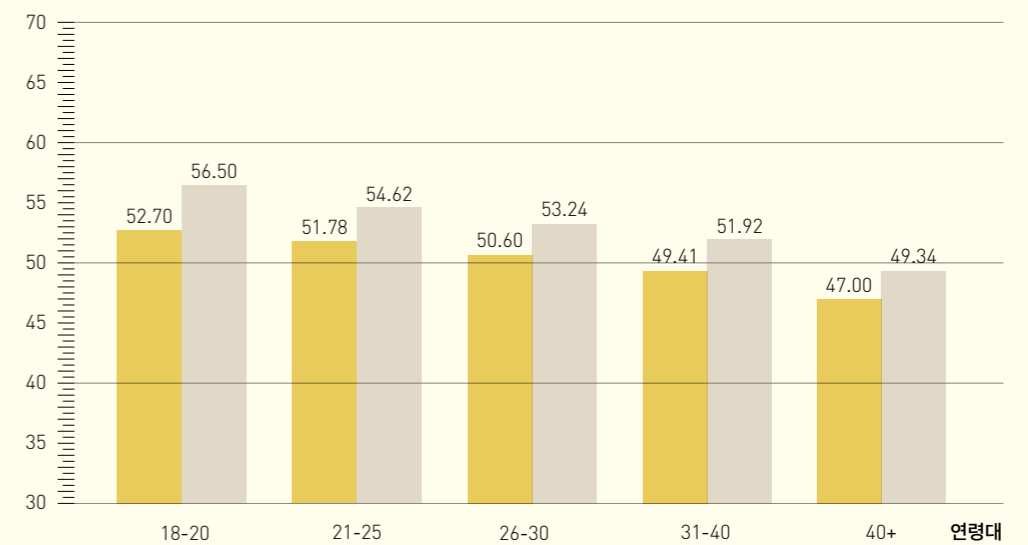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 세계

## 세대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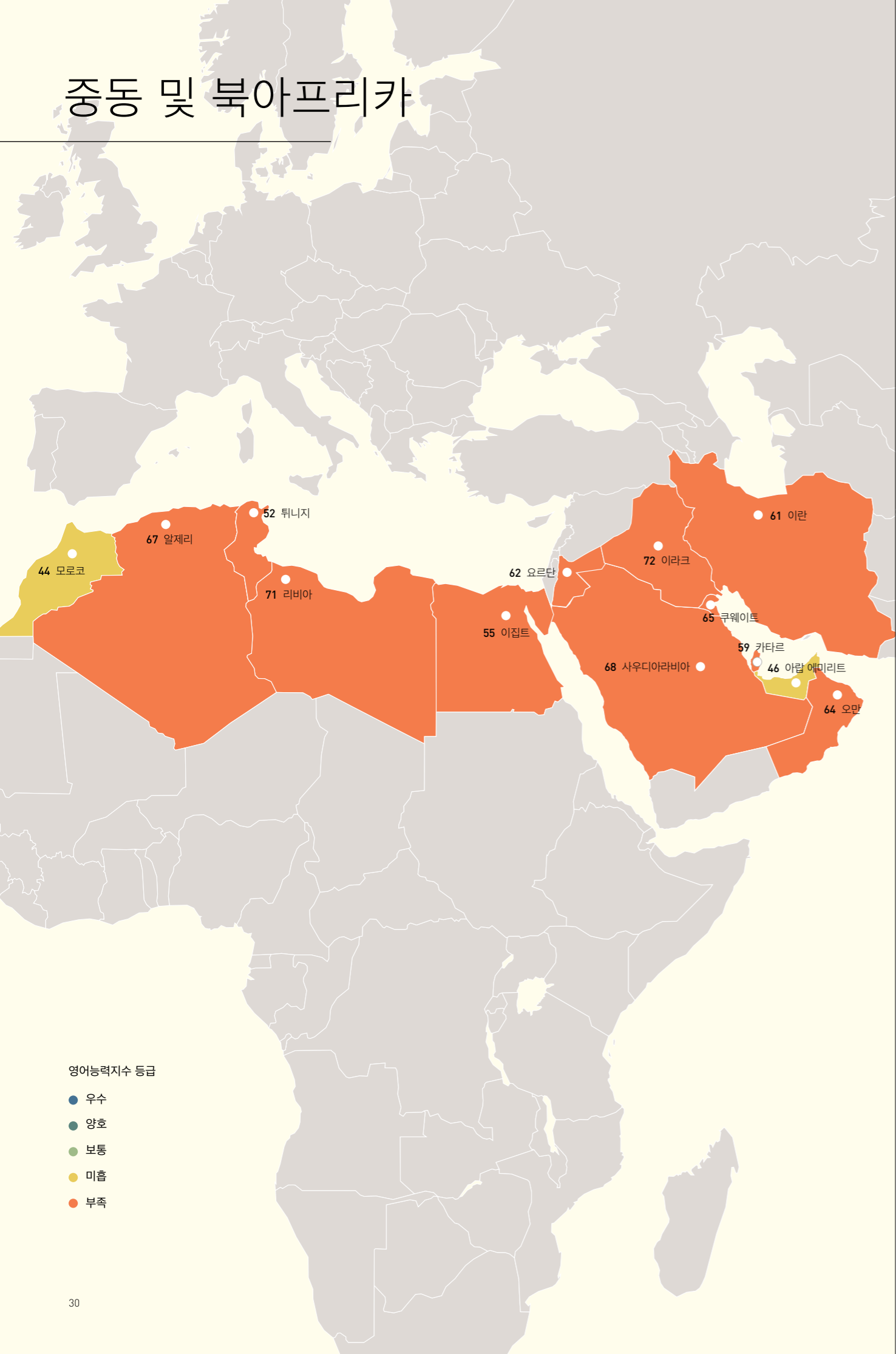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연령층의 평균 점수는 세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청년층의 점수는 세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지역 학교의 영어 교육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 교육 계획은 청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EF EPI 점수



● 라틴아메리카 ● 세계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는 세계에서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 내 소수의 국가에서만 전반적인 영어 능력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아랍 에미르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가장 낮은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 연결 수단인 영어

식민지 시대 이후로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의 특성상, 국제 교역 및 해외 원조를 위해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ENA 지역에서 현재 교역 및 외교, 해외 강국과의 군사 협력, 국경을 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의 교류 등을 위해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인해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룹 간에 대화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세대 동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아랍권 국가들에게는 영어의 역할이 더욱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유층의 자녀만 국내외에서 영어 교육을 받던 걸쭉 지역에서 특권층의 제2언어였던 영어가 이제는 제1언어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아랍어는 하지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대학 프로그램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강사들은 학생들이 영어만큼 아랍어도 익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영어와 서구 문화의 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는 서구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영어를 배척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면 영어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도구로 보는 시각 덕분에 전적으로 영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외국어가 영어이며, 많은 대학들에서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문화 관련 교육 자료들은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국식 또는 미국식의 표준 교과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체계도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식 학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어를 일찍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 집중된 교육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 보충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도 학교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 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영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Saudi Arabian Oil Company)의 공식 사내 언어가 영어이고, 영어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 제도로는 영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영어를 수용한 아프리카 북서부 (Maghreb: 마그레브) 지역

마그레브 지역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무역, 식민 지배, 이민 등으로 프랑스와 관계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인력을 시대에 맞게 교육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숙련도는 낮지만 영어에 대한 열정은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국가가 모로코입니다. 매년 더 많은 영어 학교가 개교를 하고 고등 교육 체계의 언어를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식민지 시대 엘리트 계층이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영어는 부정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언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우나 다른 아시아 제조업체들의 모로코 진출로 인해 영어 숙련도가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었습니다. 2016년 모로코는 영어능력지수 '부족' 등급에서 벗어났으며, 영어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 구조적 문제

MENA 에서 효과적인 교육 개혁이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정규직의 절반 가량이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에 비해 급여도 높아 공공기관이 더욱 매력적인 직장이 됨으로 인해 교육 장려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MENA 지역은 자격을 갖춘 모든 대학 졸업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 결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타 지역으로의 이민률도 높습니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청년층의 학업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MENA 지역의 청년층 인구 문제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MENA 인구의 20%는 15-25세이며 45%는 15세 미만입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이탈은 이 지역의 교육 시스템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결론

MENA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개혁을 이룬다 해도 영어 또는 다른 분야에서 경제적 이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개혁이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영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지역보다 적을 것입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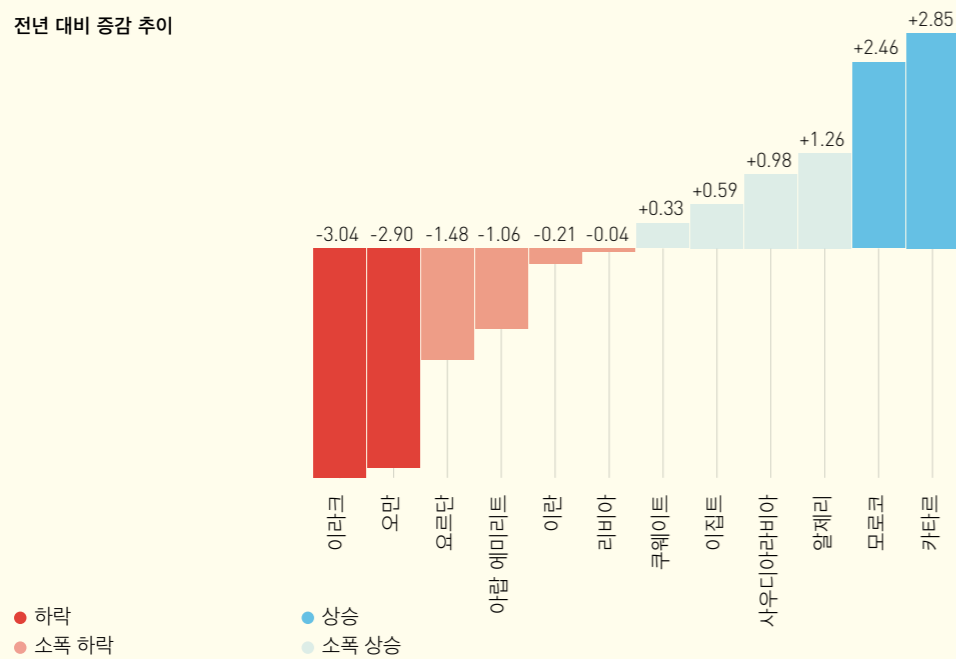
44 모로코	49.86	64 오만	43.44
46 아랍 에미리트	49.81	65 쿠웨이트	42.98
52 튀니지	47.70	67 알제리	41.60
55 이집트	47.32	68 사우디아라비아	40.91
59 카타르	46.57	71 리비아	37.82
61 이란	46.38	72 이라크	37.65
62 요르단	45.85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EF EPI 추세

MENA 지역은 전년 대비 영어능력지수 변동 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로코와 카타르가 눈의 띄게 향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MENA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가장 낮은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라크와 오만의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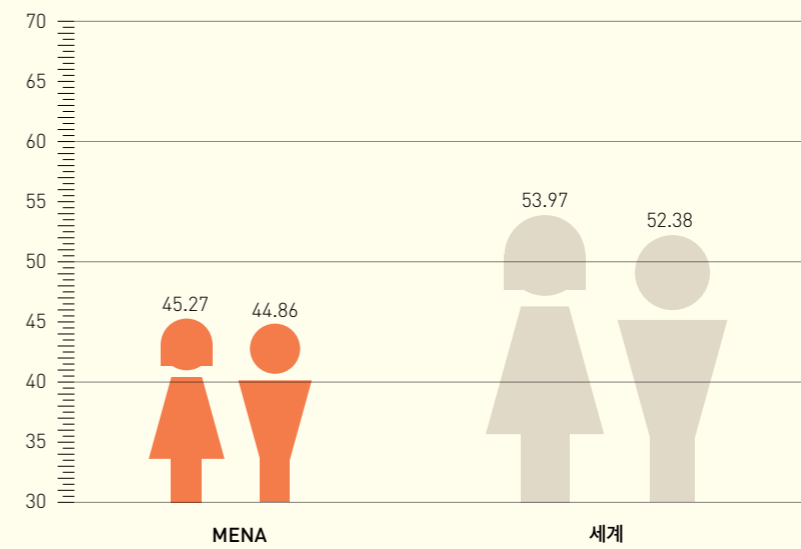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에 따른 차이

MENA 지역의 여성 및 남성의 평균은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영어능력지수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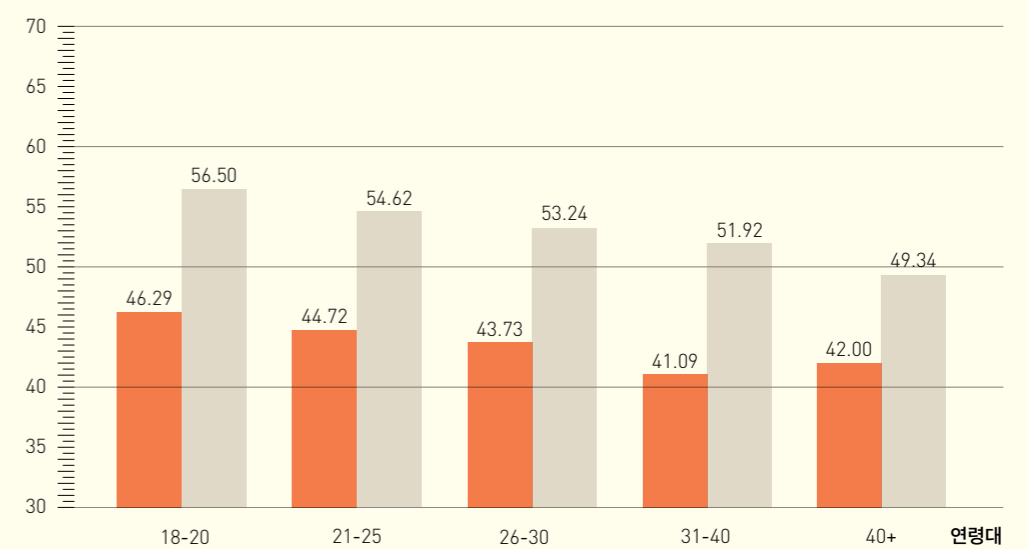


● MENA ● 세계

## 세대 간 차이

MENA 지역의 모든 연령대별 평균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31-40세 그룹 평균의 경우 세계 추세와는 다르게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세 이상 성인은 학교가 아닌 개인적인 학습이나, 직장에서 영어를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 EF EPI 점수



● MENA ● 세계

## 결론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영어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영어 교육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도 직원의 영어 능력과 그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F EPI 제 6 판에서는 각 국가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들이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및 전략에 대해 평가해보았습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영어의 역할과 좀 더 효과적이고 개인에 맞는 영어 학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영어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체계의 개혁.** 낮은 학력 수준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포함한 최소 10년의 수준 있는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중 언어 사용 문화 정착.** 어린 시절부터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가족, 학교, 정부 모두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중 언어 사용 문화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스칸디나비아 등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용적인 의사 소통 능력에 집중.**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은 문법적 오류를 정정하거나 원어민의 어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의사소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전 교육 방식인 문법 위주의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추가로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효과적인 영어 평가 방법 개발.**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상황, 목표,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시험을 개편하는 것은 특히나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과 관련된 교육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 및 개인 성인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육 시스템처럼 무료 평가 시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교사 교육에 투자.**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되지만 한다면, 교사 양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교육된 한 선생님이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성인 교육을 위한 직장 및 민간 부문 지원.** 많은 경우 성인들은 회사에서 영어로 대화해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의 기회도 많고 학습을 위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성인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 및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투자.**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수업 방식 외의 학습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강좌, 화상 학습 및 온라인 대화 수업 모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용 앱이나 모바일 제품들도 이동 중에 문법, 어휘, 듣기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 능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인 영어능력지수에 관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영어 교육에 대한 논의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아래의 EF EPI 점수 변화는 각 국가별 EF EPI 제 5 판과 제 6 판 사이의 점수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2 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영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EF EPI 제 5 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4 년에 수집한 자료이며, 제6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5 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국가	EF EPI 제 5 판	EF EPI 제 6 판	점수 변화
과테말라	49.67	47.64	-2.03
네덜란드	70.58	72.16	+1.58
노르웨이	67.83	68.54	+0.71
대한민국	54.52	54.87	+0.35
덴마크	70.05	71.15	+1.10
도미니카공화국	56.71	57.24	+0.53
독일	61.83	61.58	-0.25
라오스	—	38.45	신규
러시아	51.59	52.32	+0.73
루마니아	59.69	58.14	-1.55
룩셈부르크	63.45	63.20	-0.25
리비아	37.86	37.82	-0.04
마카오	—	51.36	신규
말레이시아	60.30	60.70	+0.40
멕시코	51.34	49.88	-1.46
모로코	47.40	49.86	+2.46
몽골	43.64	42.77	-0.87
베네수엘라	46.14	46.53	+0.39
베트남	53.81	54.06	+0.25
벨기에	59.13	60.90	+1.7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56.17	신규
불가리아	—	56.79	신규
브라질	51.05	50.66	-0.39
사우디아라비아	39.93	40.91	+0.98
세르비아	—	59.07	신규
스리랑카	47.89	46.58	-1.31
스웨덴	70.94	70.81	-0.13
스위스	58.43	60.17	+1.74
스페인	56.80	56.66	-0.14
슬로바키아	56.34	57.34	+1.00
싱가포르	61.08	63.52	+2.44
아랍 에미리트	50.87	49.81	-1.06
아르헨티나	60.26	58.40	-1.86
아제르바이잔	46.12	46.90	+0.78
알제리	40.34	41.60	+1.26
에콰도르	51.67	49.13	-2.54

국가	EF EPI 제 5 판	EF EPI 제 6 판	점수 변화
엘살바도르	45.52	43.83	-1.69
오만	46.34	43.44	-2.90
오스트리아	61.97	62.13	+0.16
요르단	47.33	45.85	-1.48
우루과이	50.25	51.63	+1.38
우크라이나	52.61	50.62	-1.99
이라크	40.69	37.65	-3.04
이란	46.59	46.38	-0.21
이집트	46.73	47.32	+0.59
이탈리아	54.02	54.63	+0.61
인도	58.21	57.30	-0.91
인도네시아	52.91	52.94	+0.03
일본	53.57	51.69	-1.88
중국	49.41	50.94	+1.53
체코	59.01	59.09	+0.08
칠레	51.88	50.10	-1.78
카자흐스탄	47.04	47.42	+0.38
카타르	43.72	46.57	+2.85
캄보디아	39.15	39.48	+0.33
코스타리카	50.53	51.35	+0.82
콜롬비아	46.54	48.41	1.87
쿠웨이트	42.65	42.98	+0.33
타이완	53.18	52.82	-0.36
태국	45.35	47.21	+1.86
터키	47.62	47.89	-0.27
튀니지	—	47.70	신규
파나마	48.77	48.08	-0.69
파키스탄	49.96	48.78	-1.18
페루	52.46	49.83	-2.63
포르투갈	60.61	59.68	-0.93
폴란드	62.95	61.49	-1.46
프랑스	51.84	54.33	+2.49
핀란드	65.32	66.61	+1.29
필리핀	—	60.33	신규
헝가리	57.90	58.72	+0.82
홍콩	52.70	54.29	+1.59

고급 영어 사용자	C2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C1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중급 영어 사용자	B2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B1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초급 영어 사용자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A1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인용문  
 EF EPI 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 에서 B2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ndrade, Maureen Snow. (2016). Global Expansion and English Language Learning.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73, 75-85.

British Council. (2015). *English in Latin America: an Examination of Policy and Priorities in Seven Countries* (Rep.), Retrieved from <https://ei.britishcouncil.org/english-in-latin-america>

Bush, Michael D. (2008).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From vision to reality? *CALICO Journal*, 25(3), 443-470.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6).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

Council of Europe. (2015, October 28). Language Education Policy Profiles. Retrieved from [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TopOfPage](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TopOfPage)

English speaking in Morocco on the increase - BBC News. [2013, September 9]. Retrieved from <http://www.bbc.com/news/business-24017596>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Facts and Figures. (2015). *National Sheets on Education Budgets in Europe 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Florida, R., Mellander, C., & King, K. (2015).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Rep.). Toronto, ON: University of Toronto.

Grgurović, Maja et al. (2013). A meta-analysis of effectiveness studies on computer technology-supported language learning. *ReCALL*, 25(2), 165-198.

Gunnarsson, Britt-Louise. (2013). Multilingualism in the Workplace.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162-189.

Guttenplan, D.D. (2012, June 11). Battling to Preserve Arabic From English's Onslaugh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12/06/11/world/middleeast/11iht-educlde11.html?\\_r=1](http://www.nytimes.com/2012/06/11/world/middleeast/11iht-educlde11.html?_r=1)

Lauder, Allan. (2008). The status and function of English in Indonesia: A review of Key Factors. *Makara Seri Sosial Humaniora*, 12(1), 9-20.

McCormick, Christopher. (2015). Countries with Better English Have Better Economies. *Harvard Business Review*. Retrieved from <https://hbr.org/2013/11/countries-with-better-english-have-better-economies/>

Means, Barbara et al. (2013).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nd blended learning: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eachers College Record*, 115(3), 1-4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eag-201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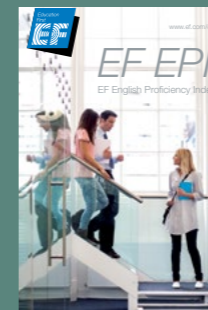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PISA 2012 Results in Focus*.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Pan, Yi-Ching & Newfields, Tim. (2012). Tertiary EFL Proficiency Graduation Requirements in Taiwan: A Study of Washback on Learning. *Electronic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9(1), 108-122.

The World Bank Group.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Work for Human Development* (Rep.). Retrieved from <http://report.hdr.undp.org/>

이전 EF EPI 리포트는 [www.ef.co.kr/epi](http://www.ef.co.kr/epi)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1판 [2011]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2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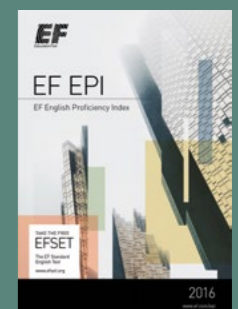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3판 [2013]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4판 [2014]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5판 [2015]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6판 [2016]

# EFSET: 언어능력 평가의 혁신

EF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 무료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tandard English Test (EFSET)를 2년 전 시작했습니다. EFSET은 영어 인증 시험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오래된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고, 측정 가능하고,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시험에 대한 요구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이 EFSET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FSET은 고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시험을 적용할 수 없었던 학교, 회사, 정부에서의 사용가치가 커졌습니다.

EFSET은 연구와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개발된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식의 시험입니다. EF는 영어 능력 평가, 대규모 시험, 심리 측정 분야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EFSET을 개발했습니다. 두 개의 연구 결과에서도 EFSET의 점수가 기존 영어 자격시험인 TOEFL 및 IELTS의 점수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FSET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 실력의 영어 학습자들이 온라인 ([www.efset.org](http://www.efset.org))에서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EF EPI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테스트 응시자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익명으로 사용합니다.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에서 무료로 EFSET에 응시하세요.

